

이원화된 유아교사(유치원·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교사효능감 및 일원화에 대한 인식 :
교사의 대학전공과 근무기관에 따른 비교*

Teachers'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acy, and Their Perceptions
about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s in the
Current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
A Comparison Across Subjects by College Major Degree and Work Place*

김선영(Sun-Young Kim)¹⁾

서소정(So-Jung Se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indergarten teachers and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acy and their perception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ose differences which were revealed were found between the subjects by their college major degree and place of employment. The 598 teachers who served as subjects for this study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and *t*-tes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subgroups by college major degree in teaching efficacy and perceptions regarding the integration system. In addition, the subjects from child care centers had higher levels of teaching efficacy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work environments, even though they had majored in the same subj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교사 전문성(teacher's professionalism), 교사 효능감(teaching efficacy), 유치원·보육교사 일원화(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teachers).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아동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Seo,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 seosojun@khu.ac.kr

I. 서 론

유아교육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는 이제 교육과 보호(care)를 합친 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며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원화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화체제로 인하여 행·재정적 낭비 및 손실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서비스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점차 유사해짐에 따라 유·보 이원화체제는 중복운영의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 2008).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교사 자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유·보 이원화로부터 발생한 교사 전문성의 편차는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격증에 따른 취업 기회 및 직업 여건의 차이 문제를 야기하며, 양성과정 및 자격증 소관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국가 행·재정적 낭비 및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김선영·신화식·이순영·이윤경·임승렬, 2007). 이러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이원화는 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 2006),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양자 모두에 있어서 유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교사이다. 실제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의 통합을 위하여 새로운 행·재정적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미화 외, 2006).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여전히 분리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이미화 외, 2006; 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송신영, 2007)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김선영 외, 2007; 박은혜, 2007; 서영숙·이미화·임승렬·조부경, 2005; 이병래·김선영, 2007)에서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 이원화된 유아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유·보 이원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유아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가 제기되고 있다. 이병래와 김선영(2007)은 'educare'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둔,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병래와 김선영(2007)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교육과정의 내용요소는 교사로서의 덕목과 철학·발달심리학·교육학·사회학적 관점에서 구성되며, 교육과정 운영은 교양·전공·교직 영역, 필수와 선택, 기본과 심화 및 기초와 확장으로 구분된다. 서영숙·이미화·임승렬과 조부경(2005) 그리고 조형숙과 이경민(2004)은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체계화는 교과 통합이나 전공필수 교과목 지정보다는 영유아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제공하고 핵심 지식과 각 교과목과의 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병래·김진호와 강정원(2005)은 영유아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사의 기본 덕목을 인간적 자질, 전문적 지식, 실천적 능력, 교직에 대한 신념 및 태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교과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

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화 등(2007)은 영유아 교사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지식기반, 직무를 토대로 태도·가치, 지식, 기술 영역으로 내용구성이 범주화된 양성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유아교사의 일원화에 관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성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유아교사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제시하는데 강조를 두었다. 반면에, 일원화 체제를 위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논의에 선행되어야 할 이원화체제에서의 교사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유아교육서비스와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점차 유사해짐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보육시설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으로 배출된 교사이며,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당연히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정되므로 차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일원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이원화된 양성 교육과정으로 배출된 교사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교사의 역할과 성격은 영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취학전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제공되는 환경 및 교육은 영유아가 건강한 아동 및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은 두 개의 분리된 활동이 아니며, '보호'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 없이 진정한 '보

호'가 제공될 수 없다(Caldwell, 1991; Smith, 1996a, 1996b). 그러므로 유아교사는 영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 발달, 교육과정 계획, 적합한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사의 일원화 체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교사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 양성 교육과정 이원화 체제하에서 유아교사가 영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따라 대학에서의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또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출신학과의 전공 및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사전문성, 교사효능감 그리고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전문직으로서의 영유아교사직의 당위성과 함께,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 2006). 교사의 전문성은 자기계발, 자율성, 책임성 등 교사란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체계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으로서 교사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 2006). 또한,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교사효능감은 교수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Bandura, 1997)로서, 국내외 선행연구

에서 유아교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교사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 근거하여 개념화된 것으로서(Soodak & Podell, 1996; Henson, Kogan, & Vacha-Haase, 2001), 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Tschannen-Moran & Hoy, 2001).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수준에서 현재 이원화된 유아교사의 양성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명하였으며, 일부 특정 학문분야에서 ‘유아교사 일원화’라는 논제가 편중되어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각과 접근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사 일원화’라는 논제가 내포하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책적 접근방안과 조합점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행 이원화된 교사양성과정 체제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사의 근무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따라 그들의 교사 전문성, 교사효능감 및 교사 양성과정 일원화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현행 이원화된 교사양성과정 체제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전공(유아교육전공/아동학전공/기타전공)에 따라 그들의 교사 전문성, 교사효능감 및 교사 양성과정 일원화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전체대상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대상 교사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교사들의 전공은 유아교육전공자가 377명(62%), 아동학 전공자가 143명(23.9%), 기타 전공이 75명(12.5%)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320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3년제 대학 졸업 239명(39.9), 대학원 졸업 37명(6.2%)이었다. 교사의 연령은 25세 이하 159명(26.6%), 26~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N = 59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공	유아교육전공	377	62.9
	아동학전공	143	23.9
	기타	75	12.5
	무응답	4	.7
학력	3년제 대학 졸업	239	39.9
	4년제 대학 졸업	320	53.4
	대학원 졸업	37	6.2
	무응답	3	.5
연령	25세 이하	159	26.6
	26~30세	291	48.7
	31~35세	76	12.7
	36세 이상	57	9.5
	무응답	15	2.5
근무기관	국공립유치원	45	7.4
	사립유치원	231	38.6
	국공립어린이집	54	9.0
	민간어린이집	149	24.9
	법인어린이집	8	1.3
	직장어린이집	92	15.4
	무응답	20	3.3
구분	<i>M</i>	<i>SD</i>	
교사경력	4.84	3.88	

30세 291명(48.7%), 31~35세 76명(12.7%), 36세 이상 57명(9.5%)이었다. 교사의 근무기관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45명(7.4%), 사립유치원 교사가 231명(38.6%)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54명(9.0%), 민간어린이집 149명(24.9%), 법인어린이집 8명(1.3%), 직장어린이집 92명(15.4%)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경력은 평균 4.84년($SD = 3.88$)이었다.

2) 근무기관에 따른 연구대상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

(1) 유치원에 근무하는(유아교육전공자, $N = 258$)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교사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106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 132명(51.2%), 대학원 졸업 20명(7.8%)이었다. 교사들의 연령은 25세 이하 74명(28.7%), 26~30세 123명(47.7%), 31~35세 34

<표 2>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인구사회적 특성 ($N = 258$)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력	3년제 대학 졸업	106	41.1
	4년제 대학 졸업	132	51.2
	대학원 졸업	20	7.8
연령	25세 이하	74	28.7
	26~30세	123	47.7
	31~35세	34	13.2
	36세 이상	24	9.3
	무응답	3	1.2
근무기관	국공립유치원	43	16.7
	사립유치원	215	83.3
	구분	M	SD
교사경력($N = 258$)		5.33	4.17

명(13.2%), 36세 이상 24명(9.3%)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근무기관은 국공립유치원 43명(11.4%), 사립유치원 교사가 215명(57.0%)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경력은 평균 5.33년($SD = 4.17$)이었다.

(2)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110명(35.3%), 아동학 전공자가 131명(42.0%), 기타 70명(22.4%)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169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3년제 대학 졸업 131명(42.0%), 대학원 졸업 12명(3.8%)이었다. 교사들의 연령은 25세 이하 75명(24.0%), 26~30세 153명(49.0%),

<표 3>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N = 31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공	유아교육전공	110	35.3
	아동학전공	131	42.0
	기타	70	22.4
	무응답	1	0.3
학력	3년제 대학 졸업	131	42.0
	4년제 대학 졸업	169	54.2
	대학원 졸업	12	3.8
연령	25세 이하	75	24.0
	26~30세	153	49.0
	31~35세	41	13.1
	36세 이상	31	9.9
	무응답	12	3.8
근무기관	국공립어린이집	54	17.3
	민간어린이집	149	47.8
	법인어린이집	8	2.6
	직장어린이집	92	29.5
	무응답	9	2.9
	구분	M	SD
교사경력($N = 312$)		4.45	3.62

31~35세 41명(13.1%), 36세 이상 31명(9.9%)이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 54명(17.3%), 민간어린이집 149명(47.8%), 법인어린이집 8명(2.6%), 직장어린이집 92명(29.5%)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경력력은 평균 4.45년($SD = 3.62$)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교사 전문성 인식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성 수행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화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발(문항 1-7번, 7개 문항), 보육신념(8번-13번, 6개 문항), 자율성(14-15번, 2개 문항), 그리고 책임감(16-19번, 4개 문항)이라는 4가지 하위요인에 걸쳐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교사전문성 인식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평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 전문성 인식에 관한 전체 신뢰도는 .881이었다.

2) 유아교사 효능감

유아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선영과 서소정(2009)이 개발한 유아교사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효능감의 개념적 구조를 교사의 역할과 직무수행 능력에 기초한 Tschannen-Moran과 Hoy(2001), Bandura(1997, 2006)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국내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닌 신념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유아교사효능감 척도는 총 59개 문항과 6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과 문항 수는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13개 문항, ‘환경 및 일과구성’ 10개 문항, ‘학급 운영관리’ 11개 문항, ‘교수’ 11개 문항, ‘돌봄 7개 문항 그리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7개 문항이다. 본 척도는 9점 평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효능감에 관한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1 = .93, 요인2 = .94, 요인3 = .94, 요인4 = .93, 요인5 = .92, 요인6 = .92, 그리고 전체 신뢰도는 .93이었다.

3)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하에 따른 교사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유희정 외, 2008)를 고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보육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아동학과 및 유아교육학과 출신 보육교사 각각 2명과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유아교육전공 유치원 교사 2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사의 통합’이라는 주제가 가진 핵심(essence)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면접을 한 차례이상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 즉 1) 유치원 및 보육현장에서 교사역할 수행에 따른 개인적인 경험(교사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차원), 2)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교사양성과정 및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3) 유아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에 대한 교사로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예 : 인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문 및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여부)을 사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또한 선행 연구 고찰 및 교사 면접을 통해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면접에 참여한 6명의 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 2명(유아교육, 보육전공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4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2) 현행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의 필요성(예/아니오); 3) 일원화를 희망하는 이유(우선순위 3순위); 4)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우선순위 3순위).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구립, 민간, 법인, 직장보육시설 포함)과 유치원(국공립, 사립, 법인 유형 포함_병설/단설 유치원 제외함)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년제 대학 이상 아동학과 및 관련학과/전공 출신인 보육교사와 3년제 이상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출신인 유치원 교사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경험자 이면서 현재 주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표집을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을 전공한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전제하에서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전공을 아동학과 유아교육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표집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중 교직을 이수하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기간은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28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11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98부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 교사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교사전문성 인식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유의도는 대부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교육 전공자의 교사전문성, 교사효능감, 교사 양성과정 일원화에 인식

1) 유아교육전공교사의 근무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따른 교사전문성 인식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전문성 인식수준 하위요인들 및 전체총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계발, 보육신념, 자율성, 책임감, 전체총점 모두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차이 (N = 377)

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M(SD)		t
	유치원 (N = 267)	어린이집 (N = 110)	
자기개발	3.77(.50)	3.73(.48)	.696
보육신념	3.93(.55)	3.90(.46)	.586
자율성	3.97(.63)	3.98(.61)	-.140
책임감	4.11(.57)	4.08(.53)	.542
총점	3.91(.45)	3.88(.39)	.629

2) 유아교육 전공자의 근무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교사 효능감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요인 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 = -2.023$,

<표 5>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 = 377)

교사효능감	M(SD)		t
	유치원 (N = 267)	어린이집 (N = 110)	
요인1	6.72(1.09)	6.94(.92)	-2.023*
요인2	7.21(.97)	7.22(.92)	-.031
요인3	7.16(.96)	7.29(.78)	-1.304
요인4	7.07(.95)	6.90(.85)	1.631
요인5	7.14(1.00)	6.57(1.06)	4.910***
요인6	7.04(1.02)	6.99(.98)	.472
총점	7.04(.87)	7.01(.80)	.340

* $p < .05$. *** $p < .001$.

* 요인 1 :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요인 2 : 환경 및 일과구성

요인 3 : 학급운영관리

요인 4 : 교수

요인 5 : 돌봄

요인 6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p < .05$),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M = 6.72$, $SD = 1.09$)에 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M = 6.94$, $SD = .92$)의 요인 1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5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4.910$, $p < .001$),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M = 6.57$, $SD = 1.06$)에 비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M = 7.14$, $SD = 1.00$)의 요인 5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양성과정 일원화 인식

(1)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

유아교육 전공자의 근무기관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근무기관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자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2.406$, $p < .05$),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자($M = 2.63$, $SD = .77$)에 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자($M = 2.83$, $SD = .55$)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아교육 전공자의 근무기관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 (N = 355)^a

구분	근무기관		t
	유치원 (N = 255)	어린이집 (N = 100)	
	M(SD)	M(SD)	
교사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만족도	2.63(.77)	2.83(.55)	-2.406*

* $p < .05$.

^a본 항목에 대하여 일부 무응답한 사례수로 인해 전체 N = 377과는 차이를 보임.

(2)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 필요성 인식수준 차이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일원화 필요성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표 7>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 필요성 인식수준 차이 (N = 363)^a

구분	근무기관		
	유치원 N(%)	어린이집 N(%)	전체 N(%)
일원화 운영 바람	181(71.3)	99(90.8)	280(77.1)
현행 유지 바람	73(28.7)	10(9.2)	83(22.9)
전체	254(100.0)	109(100.0)	363(100.0)

$\chi^2 = 16.555$ $df = 1$, $p = .000$

^a본 항목에 있어 일부 무응답한 사례수로 인해 전체 N = 377과는 차이를 보임.

과 같으며,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71.3%)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90.8%)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가 일원화 운영을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린이집(9.2%)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에 비해 유치원(28.7%)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 희망 이유(1순위)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일원화를 희망하는 1순위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화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

<표 8>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 희망 이유 차이(1순위) (N = 283)^a

구분	근무기관		
	유치원 N(%)	어린이집 N(%)	전체 N(%)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전문성 부족	41(22.4)	4(4.0)	45(15.9)
보육교사 양성과정 전문성 부족	24(13.1)	37(37.0)	61(21.6)
유사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함	44(24.0)	27(27.0)	71(25.1)
자격증 관리부처 이원화	27(14.8)	3(3.0)	30(10.6)
상호고용의 형평성에 어긋남	6(3.3)	8(8.0)	14(4.9)
교사간 전문성의 편차 발생	9(4.9)	2(2.0)	11(3.9)
보육교사는 교원자격 부여받지 못함	5(2.7)	10(10.0)	15(5.3)
초중등 교원에 비해 유아 교사 전문성 인식 낮음	26(14.2)	8(8.0)	34(12.0)
기타	1(.5)	1(1.0)	2(.7)
총합	183(100.0)	100(100.0)	283(100.0)

$\chi^2 = 52.579$, $df = 8$, $p = .000$

^a본 문항에 있어 일부는 일원화를 희망하지 않는 관계로 전체 N = 377과는 차이를 보임.

<표 9>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 선결조건 차이(1순위) (N = 340)^a

구분	근무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N(%)	N(%)	N(%)
교사 자격증 일원화	38(15.9)	15(14.9)	53(15.6)
법적 기본 이수 교육과정 표준화	46(19.2)	24(23.8)	70(20.6)
자격관리 통합 운영	41(17.2)	28(27.7)	69(20.3)
자격증 관리 담당 주부처 효율적인 운영	28(11.7)	7(6.9)	35(10.3)
근무여건과 처우조건 균등화	19(7.9)	8(7.9)	27(7.9)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균등화	10(4.2)	7(6.9)	17(5.0)
학력고양을 통한 전문성 균등화	24(10.0)	5(5.0)	29(8.5)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1(13.0)	6(5.9)	37(10.9)
기타	2(.8)	1(1.0)	3(.9)
전체	239(100.0)	101(100.0)	340(100.0)

$\chi^2 = 12.711, df = 8, p = .122$

^a본 문항에 있어 일부는 일원화를 희망하지 않은 관계로 전체 N = 377과는 차이를 보임.

이가 나타났다(<표 8>).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경우 ‘유사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함’(24.0%)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전문성 부족’(37.0%)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응답 비율차이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일원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1순위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9>),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 전문성, 교사효능감 및 교사 양성과정 일원화인식

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공(유아교육/아동학/기타전공)에 따른 교사전문성 인식의 차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공(유아교육, 아동학, 기타전공)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하위요인들 및 전체총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기계발, 자율성, 책임감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신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 = 3.912, p < .05$),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기타 전공 교사($M = 3.74, SD = .54$)에 비해 아동학 전공 교사($M = 3.92, SD = .44$)의 보육신념에 관한 전문성 인식수준

<표 10>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차이 (N = 312)

교사의 전문성 인식	M(SD)			F
	유아교육전공 (N = 110)	아동학전공 (N = 131)	기타 (N = 70)	
자기개발	3.73(.48)	3.78(.48)	3.71(.56)	.548
보육신념	3.90(.46) ^{ab}	3.92(.44) ^b	3.74(.54) ^a	3.912*
자율성	3.98(.61)	3.95(.60)	3.87(.61)	.717
책임감	4.08(.53)	4.19(.53)	4.13(.59)	1.229
총 점	3.88(.39)	3.93(.40)	3.82(.46)	1.543

* $p < .05$.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문성 인식수준 전체총점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공(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기타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가운데 전공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사의 전공에 따라 교사 효능감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6.638, p < .01$),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유아교육전공($M = 7.01, SD = .83$)에 비해 아동학을 전공한 교사($M = 7.11, SD = .98$)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에서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 = 3.311, p < .05$),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전공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표 11>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 = 311)

교사효능감	M(SD)			F
	유아교육전공 (N = 110)	아동학전공 (N = 131)	기타전공 (N = 70)	
요인1	7.32(.76)	7.58(.85)	7.31(1.04)	3.311*
요인2	7.03(.88) ^b	6.82(1.07) ^{ab}	6.58(1.20) ^a	3.868*
요인3	7.25(.91) ^a	7.68(.86) ^b	7.32(1.05) ^a	6.953**
요인4	6.98(.87) ^a	7.54(1.01) ^b	7.18(1.08) ^a	9.628***
요인5	6.47(1.09) ^a	7.54(.87) ^b	7.23(1.03) ^b	34.398***
요인6	7.04(.95)	7.34(.91)	7.05(1.11)	3.443*
총점	7.01(.83) ^a	7.42(.84) ^{ab}	7.11(.98) ^a	6.638**

* $p < .05$. ** $p < .01$. *** $p < .001$.

* 요인 1 :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요인 2 : 환경 및 일과구성

요인 3 : 학급운영관리

요인 4 : 교수

요인 5 : 돌봄

요인 6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한 교사의 전공에 따라 요인 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3.868, p < .001$),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기타전공 교사($M = 6.58, SD = 1.20$)에 비해 유아교육전공 교사($M = 7.03, SD = .88$)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전공에 따라 요인 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6.953, p < .01$),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유아교육전공($M = 7.25, SD = .91$)과 기타전공($M = 7.32, SD = 1.05$)에 비해 아동학전공 교사($M = 7.68, SD = .86$)의 효능감이 더 높았다. 요인 4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9.628, p < .001$),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유아교육전공($M = 6.98, SD = .87$)과 기타전공($M = 7.18, SD = 1.08$)에 비해 아동학전공($M = 7.54, SD = .87$)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공에 따라 요인 5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34.398, p < .001$),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유아교육전공 교사($M = 6.47, SD = 1.09$)에 비해 아동학($M = 7.54, SD = .87$) 또는 기타 전공 교사($M = 7.23, SD = 1.03$)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6의 경우에도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 = 3.443, p < .05$), Scheffé의 사후검증에서는 전공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공(유아교육, 아동학, 기타전공)에 따른 유아교사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

(1)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공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공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그 결과 전공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5.122, p < .01$),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아동학전공 어린이집 교사($M = 2.51, SD = .84$)에 비해 유아교육전공 어린이집 교사($M = 2.83, SD = .55$)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전공 교사의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는 평균 2.67($SD = .84$)로 나타났다.

(2)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 필요성 인식

① 일원화 필요성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일원화 필요성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화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어

<표 12>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현행 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만족도 (N = 293)^a

구분	전공			F
	유아교육전공 (N = 100)	아동학전공 (N = 126)	기타전공 (N = 67)	
	M(SD)	M(SD)	M(SD)	
교사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만족도	2.83(.55) ^a	2.51(.84) ^b	2.67(.84) ^{ab}	5.122**

** $p < .01$.

^a본 문항에 있어 일부 무응답한 사례수로 인해 전체 N = 311과는 차이를 보임.

<표 13>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 필요성 인식수준 차이

(N = 300)^a

구분	전공			
	유아교육 전공	아동학 전공	기타	전체
	N(%)	N(%)	N(%)	N(%)
일원화 운영 바람	99(90.8)	109(87.2)	65(98.5)	273(91.0)
현행 유지 바람	10(9.2)	16(12.8)	1(1.5)	27(9.0)
전체	109(100.0)	125(100.0)	66(100.0)	300(100.0)

$\chi^2 = 6.723, df = 2, p = .035$

^a본 문항에 있어 일부 일원화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였기에 전체 N = 311과는 차이를 보임.

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전공(98.5%), 유아교육 전공(90.8%), 아동학 전공(87.2%) 순으로 교사의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일원화 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동학 전공(12.8%), 유아교육 전공(9.2%), 기타 전공(1.5%) 순으로 현행

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 희망 이유 차이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일원화를 희망하는 1순위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표 14>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 희망 이유 차이(1순위)

(N = 277)^a

구분	전공			
	유아교육 전공	아동학 전공	기타	전체
	N(%)	N(%)	N(%)	N(%)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전문성 부족	4(4.0)	8(7.1)	4(6.2)	16(5.8)
보육교사 양성과정 전문성 부족	37(37.0)	10(8.9)	13(20.0)	60(21.7)
유사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함	27(27.0)	30(26.8)	17(26.2)	74(26.7)
자격증 관리부처 이원화	3(3.0)	13(11.6)	7(10.8)	23(8.3)
상호고용의 형평성에 어긋남	8(8.0)	7(6.3)	4(6.2)	19(6.9)
교사간 전문성의 평가 발생	2(2.0)	4(3.6)	2(3.1)	8(2.9)
보육교사는 교원자격 부여받지 못함	10(10.0)	20(17.9)	15(23.1)	45(16.2)
초중등 교원에 비해 유아 교사 전문성 인식 낮음	8(8.0)	18(16.1)	2(3.1)	28(10.1)
기타	1(1.0)	2(1.8)	1(1.5)	4(1.4)
총합	100(100.0)	112(100.0)	65(100.0)	277(100.0)

$\chi^2 = 38.595, df = 16, p = .001$

^a본 문항에 있어 일원화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결과로 전체 N = 311과는 차이를 보임.

<표 15>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차이(1순위)

(N = 287)

구분	전공			전체
	유아교육 전공	아동학 전공	기타	
	N(%)	N(%)	N(%)	
교사 자격증 일원화	15(14.9)	32(25.8)	13(21.0)	60(20.9)
법적 기본 이수 교육과정 표준화	24(23.8)	26(21.0)	6(9.7)	56(19.5)
자격관리 통합 운영	28(27.7)	15(12.1)	11(17.7)	54(18.8)
자격증 관리 담당 주부처 효율적인 운영	7(6.9)	9(7.3)	8(12.9)	24(8.4)
근무여건과 처우조건 균등화	8(7.9)	23(18.5)	13(21.0)	44(15.3)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균등화	7(6.9)	5(4.0)	1(1.6)	13(4.5)
학력고양을 통한 전문성 균등화	5(5.0)	5(4.0)	3(4.8)	13(4.5)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5.9)	9(7.3)	7(11.3)	22(7.7)
기타	1(1.0)	0(0)	0(0)	1(.3)
전체	101(100.0)	124(100.0)	62(100.0)	287(100.0)

$$X^2 = 28.268, df = 16, p = .029$$

^a본 문항에 있어 일원화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무응답한 사례수를 제외한 결과로 인해 전체 N = 311과는 차이를 보임.

위해 카이자승(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4>). 유아교육 전공자의 경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전문성 부족’(37.0%)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아동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불합리함’(26.8%)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전공자의 경우에도 ‘유사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불합리함’(26.2%)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공에 따른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응답 비율차이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일원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1순위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X^2)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5>). 유아교육 전공자의 경우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1순위로 ‘통합·운영’(27.7%)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아동학 전공자의 경우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일원화’(25.8%)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전공자의 경우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 1순위로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일원화’(21.0%)와 ‘근무여건과 처우조건이 균등화되어야 함’(21.0%)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체제와 영유아 보육 체제로 이

원화됨에 따라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이원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아교사의 일원화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시의적인 사안에 따라 일원화 필요성의 당위적인 차원에서 양성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원화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에 선행되어야 할 현행 이원화 체제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성격의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일환으로서,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출신학과의 전공 및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사전문성, 교사효능감 그리고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밝혀진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전공 교사가 근무기관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든 관계없이,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이 유아교육전공이든 아동학전공이든 기타전공이든 관계없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이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른 교사효능감을 살펴보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영역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돌봄’ 영역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효능감은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 기타전공)에 따라서도 전체 교사효능감 및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육

전공에 비해 아동학을 전공한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교사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전공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 및 일과구성’ 영역에서 기타전공 교사에 비해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운영관리’와 ‘교수’, 영역에서 유아교육전공과 기타전공에 비해 아동학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았다. ‘돌봄’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전공 교사에 비해 아동학 전공과 기타 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을 유아교육전공과 아동학전공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교사효능감의 경우 유아교육 전공 교사에 비해 아동학 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영역의 경우 아동학 전공 교사에 비해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일과구성’, ‘교수’, ‘돌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사에 비해 아동학 전공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의 전공 및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보통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유아교육전공자의 경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전공에 관계없이 일원화 희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의 일원화 희망 이유는 유아교

육전공자의 경우, 근무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경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사자격 관련 규정은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특정 교과명으로 각기 정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불합리함'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경우에는 '취학 전 영유아(0-만 5세)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보호양육과 교육의 역할 둘 다 모두 수행하기에는 현행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교사의 경우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유아교육 전공자의 경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전문성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아동학 전공자와 기타 전공자의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불합리함'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유아교육전공자의 경우,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일원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본 이수 교육과정 표준화'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관리(현직 교사연수 및 세미나, 자격연수, 보수교육, 직무 및 승급교육이 상호인정되어 통합·운영되어야 함'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유아교육 전공자는 '자격관리 통합·운영'을, 아동학 전공자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일원화'를, 그리고 기타 전공자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일원화'와 '근무여건과 처우조건이 균등화되어야 함'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전공 교사가 근무기관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이 유아교육전공이든 아동학 전공이든 기타전공이든지 관계없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문직의 관점에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과 성격은 동질적이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병래와 김선영(2007)의 연구에서도 영유아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인식의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 바 있다. 사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유사한 현실 속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역할 및 성격을 논할 때 전자는 '양육과 보호'로, 그리고 후자는 '교육'으로 이분화 했던 기존의 주장은 이미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각에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교직이란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유치원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는 교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 교사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보육·교육서비스의 대상이 만 3세-5세와 0-만 5세로 구별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유아 생애의 관점에서 영아와 유아의 연계를 고려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육교사로서 유치원 교사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영역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육전공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육전공 교사가 '돌봄' 영역의 효능감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돌본다는 것은 영유아에게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교사가 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이 준비되어야함이 더 요구되

는 것이기에 유치원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아교육전공자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모두 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양성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함의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의무(법적) 교육과정에서의 강조 영역 차이와 전공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치원 교사 양성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을, 보육교사 양성에서는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과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영역’의 교과목을 강조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보육·양육관련 부분에 대한 소양 습득의 기회가 부족하고, 보육교사에게는 교육관련 부분에 대한 소양 습득의 기회가 부족하다(이병래·김선영, 2007). 아마도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전공의 정체성이나 가치기준 역시 유아교육전공자들은 교육적 접근에 중점을 둔 반면에, 아동학전공자들은 생애 발달적 접근에 좀더 중점을 두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해석에 기초한다면, ‘교수’영역에서 아동학전공 보육교사가 유아교육전공 보육교사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에 관한 한 가지 가능성으로 본 연구자들이 생각한 바는 본 연구의 대상 중에서 아동학 전공자로 표집된 교사들의 상당수가 서울시내 여러 곳에 위치한 특정 직장보육시설 위탁체에 소속된 교사들로서 해당 보육시설 고유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아동학 전공 보육교사의 높은 ‘교수’ 효능감이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별 교사효능감에 대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로서는 아동학 전공의 우월성이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 전공 교사의 학력이 높은 표집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전공자와 유아교육 전공자 모두 학력이 아닌 전문성 인식의 ‘자기개발’과 ‘책임감’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동학 전공자들이 생애 발달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아우르는 보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생각해 보게 한다. 즉, 세계 각국의 영유아 관련 정책을 분석한 Choi(2002)에 의하면,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세 가지 개념, 즉 보호·양육, 발달, 그리고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Lero(1988)는 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보육의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이 양성교육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발달영역 관련 교과목들이 보육실무에서의 발달적인 접근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러한 양성과정이 교사의 보육 실무를 보육의 본질에 더 근접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일원화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일원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미화 등(2007)의 연구에서 2·3년제나 4년제, 유아교육과나 보육관련학과 교수에 관계없이,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사항으로 ‘교사 자격 일원화 제도의 마련’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다. 일원화를 희망하는 이유 및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조건에 대한 응답이 유아교육전공교사와 아동학 및 기타 전공 교사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교사의 역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으로는 유치원에 취업할 수 없어 상호고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평가한 교사효능감에서는 유아교육전공 교사의 근무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성 인식과 교사효능감에서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의 주장이 시의 적인 사안에 근거한 당위적인 차원 이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현행 이원화된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이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대학에서의 일원화된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전공의 보육관련 학과 출신 교사로 확대하거나, 교사효능감 외의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양성교육과정 이원화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조사하는 등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영·서소정(2009). 유아교사 효능감 척도 개발(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256.
- 김선영·신화식·이순영·이윤경·임승렬(2007). 대학에서의 유아교사(보육·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원화.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자료집 : 유아교육체제 정립을 위한 교원정책발전방안**, 17-33.
- 박은혜 (2007).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미래 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 유아교육보육 자리매김의 미래전망**, 67-87.
- 서영숙·이미화·임승렬·조부경(2005). 한국 유치원/보육교사교육의 역사와 미래 :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자리매김**, 107-130.
-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연구보고 2008-09).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송신영(2007). **육아지원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연구보고 2007-05).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연구보고 2006-03).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병래·김선영(2007).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유아교육연구**, 27(5), 11-133.
- 이병래·김진호·강정원(2005).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기준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방향 모색 : 영유아교사의 덕목에 관한 현직교사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9(1), 53-79.
- 조형숙·이경민(2004).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 방안. **유아교육학**

- 논집, 8(1), 5-32.
- Soodak, L. C., & Podell, D. M. (1996). Teacher efficacy : Toward the understanding of a multi-faceted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2*(4), 401-41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f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307-337). New York : W. H. Freeman.
- Caldwell, B. (1991). Educare : New product, new future.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2*(3), 199-205.
- Choi, S. H. (2002). *Early Childhood Care? Development? Education? : Policy Briefs on Early Childhood no1*.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 Henson, R. K., Kogan, L. R., & Vacha-Haase, T. (2001). A reliability generalization study of the teacher efficacy scale and related instrum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 (3), 404-420.
- Lero, D. S. (1988). The potential role of national surveys as a tool in understanding the ecology of child care. In A. Pence (Ed.), *Ec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 From concept to methodology* (pp.76-98).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Smith. A. B. (1996a). *Early childhood educare : Quality programmes which care and educat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3 053).
- Smith. A. B. (1996b). Quality programs that care and educate. *Childhood Education, 72*(6), 330-336.
- Tschannen-Moran, M., & Woolfolk Hoy, A. (2001). Teacher efficacy :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7), 783-805.

2010년 2월 28일 투고, 2010년 5월 10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